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I. 회의개요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가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됨.

II. 주요내용

- 브라질 의장(결과문서 채택이후 폐회식 행사시 지우마 대통령이 참석) 주재하에 개최된 폐회식에서 참가국들은 만장일치로 결과문서 “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는 결의 및 금번 회의 주최국인 브라질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결의(G77 발의)를 채택하고, 아울러 회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
- 결과문서 채택 이후,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Alba 그룹 국가들은 Green Economy가 각국의 개발 정책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동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며, G77(알제리), EU(덴마크), 아프리카 그룹(DR콩고) 등도 녹색경제, UNEP 전문가구화 등에 대하여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발언함.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미국은 결과문서에 여성의 재생산권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였으며, 교황청은 낙태를 포함하는 여성의 재생산권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베네주엘라 대표는 자국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의장 밖에서 비정부기구인 Green Peace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유엔사무국과 의장국 브라질이 동 사건에 적절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의장은 유엔 사무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함.
- Rio +20 총회 사무국장인 Sha Zukang은 지난 2년간의 회의 준비기간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반기문 사무총장은 결과문서가 향후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모든 회원국의 통합된 노력을 촉구함.

- 지우마 대통령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의 결과문서는 모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각국이 총의(consensus)로 합의한 만큼 더 의미가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설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강화 방안, 해양보호구역 이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의 개시 등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Ⅲ. 관찰 및 평가/건의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세계의 의지 확인
 - 지속가능발전이 경제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재확인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
- “녹색경제” 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녹색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함으로써 UN 차원에서 최초로 녹색경제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 지속가능발전의 포용적 성격 강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여성, 아동, 원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포용적 지속가능발전 촉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절차에 합의하여 개발의 새로운 개념 제시
 - 각 국 정상은 SDGs 설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post-2015 개발 어젠다와의 연계를 촉구, 향후 지속가능발전이 개발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입장차 확인
 - 선진국들은 신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능 등 녹색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모든 참가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구
 - 개도국들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을 강조하며 선진국들의 선도적 노력을 촉구, 녹색경제는 하나의 정책 옵션임을 주장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재정적 지원 증대를 요구
- UNEP(유엔환경계획) 전문기구화에 대한 이견 확인
 - 참가국은 국제 환경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환경관련 전문기구 설립에는 이견 노정
 - EU 및 아프리카 정상들은 UNEP 전문기구화 실패에 대한 아쉬움 피력